

1위 지키기 '이동거리'와 싸움



팻딘

마지막 2연전 문학→사직→광주 1000km 질주

팻딘, 마운드 첫 스타트 선두 굳히기 앞장

T 타이거즈 전망대

■ KBO리그 순위 (11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127	77	1	49	0.611	0.0
2	두산	130	74	3	53	0.583	3.5
3	NC	131	74	1	56	0.569	5.0
4	롯데	132	71	2	59	0.546	8.0
5	SK	133	68	1	64	0.515	12.0
6	LG	126	63	3	60	0.512	12.5
7	넥센	133	66	2	65	0.504	13.5
8	한화	128	54	1	73	0.425	23.5
9	삼성	131	50	4	77	0.394	27.5
10	kt	129	44	0	85	0.341	34.5

'호랑이 군단'이 승리를 위해 1000km를 달린다.

프로야구의 마지막 2연전 일정이 진행된다. 이번 한 주가 지나면 19일부터 우천 취소 등으로 치르지 못한 잔여 경기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KIA의 마지막 2연전 키워드는 '질주'다.

말 그대로 일단 많이 달린다. KIA는 문학에 이어 사직으로 건너가 원정경기를 치른 뒤 안방으로 돌아와 kt와 주말 2연전을 갖는다. 한 주 이동 거리만 1000km 이르는 강행군이다.

여기에 1위 독주를 이어가야 하는 KIA에겐 만만치 않은 질주를 하고 있는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다.

첫 상대인 5위 SK 와이번스는 6위 LG 트윈스와 승 마치는 5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반 경기 차 뒤에서 LG가 쫓고 있는 만큼 SK는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뜨거운 화력전이 전개됐던 문학이 무대가 되는 만큼 예상할 수 없는 한방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사직에서 펼쳐지는 롯데와의 경기도 '빅매치'이다.

1위 팀과 후반이 가장 잘 나가는 팀의 맞대결이다. 롯데는 후반이 성적과 흥행의 중심이 되며, 4위까지 치고 올랐다. SK를 4경기 차로 밀어낸 롯데는 3경기 차로 3위 NC를 쫓고 있다.

KIA의 질주를 막은 팀이 롯데이기도 하다. 전반기 8승 1패로 롯데에 압도적인 성적을 냈던 KIA는 후반기 내리 5연패를 당하면서 위정거렸다. KIA의 1위 질주에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날렸던 롯데와의 마지막 대결이다.

주말에 광주를 찾는 kt도 KIA에는 반갑지 않은 상대다.

최하위지만 kt는 최근 6승 4패의 전적을 내며 '고춧가루 부대'로 맹활약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마음 급한 7위 넥센에게 연패를 안겨줬고, 두산과 롯데도 kt의 기세 앞에서 1승 1패를 나눠 가져야 했다.

상대전적과 잔여 경기 일정에서도 kt가 KIA의 복병이다. 올 시즌 KIA는 kt에 5승 5패로 고전했다. 여기에 비로 세 경기를 치르지 못하면서 앞으로 kt와 가장 많은 5경기를 치러야 한다. 사실상 kt가 1위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먼저 마운드 스타트를 끊는 팻딘의 어깨가 무겁다. 팻딘은 지난 5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 7이닝 4피안타(피홈런) 2사사구 6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진의 난조로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감기몸살로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85구에서 등판이 멈춘 게 아쉬웠다.

다행히 로테이션 조정으로 충분한 휴식도 취했고, 컨디션도 회복됐다. 팻딘이 앞선 LG전의 아쉬움을 떨고 KIA의 1위 굳히기에 앞장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A 다저스 '충격의 10연패'

콜로라도에 1-8 또 완패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승승장구하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충격의 10연패에 빠졌다.

다저스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홈 구장인 다저스타디움에서 콜로라도 로키스와 대결해 1-8로 완패했다.

지난 3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벌인 더블헤더 1·2차전을 모두 패하면서 시작한 다저스의 연패 행진은 10경기째로 늘었다.

베데랑 좌완 선발투수 리치 힐은 5이닝 4피안타 2볼넷 5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팀 연패를 끊는 데 실패했다. 힐 개

인적으로도 4연패에 빠지며 시즌 8패(9승)째를 떠안았다. 힐은 놀린 아래나도에게 1회 초 적시타를 맞아 선취점을 허용하고, 3회 초 솔로 홈런까지 내줬다.

다저스 타선이 한 점도 뽑아내지 못하는 사이 8회 초 등판한 신인 투수 워커 뷰홀러가 마크 레이놀즈에게 만루 홈런을 맞아 점수가 더욱 벌어졌다.

8일 콜로라도전에서 2이닝 무실점으로 성공적인 바리코 데뷔전을 치렀던 뷰홀러는 이날 두 번째 등판에서는 0.1이닝 2피안타(피홈런) 2볼넷 1탈삼진 4실점으로 무너졌다.

다저스는 9회 말 대타로 나온 신인 알렉스 버두고의 솔로 홈런으로 무득점 굴욕에서는 겨우 벗어났다.

/연합뉴스

나달 US오픈 테니스 3번째 우승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040만 달러·약 565억원) 남자단식 정상에 올랐다.

나달은 11일 미국 뉴욕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서 케빈 앤더슨(32위·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 3-0(6-3 6-3 6-4)으로 승리했다.

우승 상금은 370만 달러(약 41억8000만원)다.

2010년과 2013년 이 대회 남자단식에서 우승했던 나달은 4년 만에 다시 한 번 정상에 올랐다.

통산 16번째(호주오픈 1회, 프랑스오픈 10회, 윌블던 2회, US오픈 3회)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나달은 19회로 이 부문 남자단식 최다 기록 보유자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를 3회 차로 따라갔다.

더불어 랭킹 포인트 2000점을 추가한 나달은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2014년 프랑스오픈 우승 이후 작년까지 메이저 대회 결승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나달은 올해만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전성기 시절 기량을 회복했다.

남아공 선수 최초의 US오픈 우승에 도전했던 앤더슨은 나달 상대 5전 전패로 절대 열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로저 페더러(스위스)는 US오픈이 끝난 11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페더러가 세계 랭킹 2위가 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US오픈 개막 전까지 2위였던 앤디 머리(영국)는 이 대회 불참에 따른 여파로 3위로 밀렸다.

20세 신예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가 6위에서 4위로 올라섰고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는 마린 칠리치(크로아티아)에 이어 6위로 내려갔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삼성증권 후원)은 47위에서 44위로 상승했다. 44위는 자신의 역대 최고 순위다.

지금까지 한국 선수의 남자프로테니스 세계 랭킹 최고 순위는 은퇴한 이형택(41)이 2007년 8월에 달성한 36위다.

/연합뉴스

KIA 세광고 좌완투수 김유신·성남고 투수 하준영 지명

KBO 신인 드래프트

10명중 8명 투수 선발

KIA 타이거즈가 세광고 좌완투수 김유신 등 10명의 '아기 호랑이'를 선택했다.

KIA는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KBO 신인 2차 지명회'에서 1라운드 1순위로 김유신을 지명하는 등 10명의 신인 선수를 선발했다.

10명 중 8명을 투수로 채운 KIA는 내야수 2명으로 남은 자리를 채웠다. KIA의 마운드와 내야수 백업 고민을 엮을 수 있는 결과다.

188cm, 85kg의 건장한 체격을 갖춘 김유신(좌투좌타)은 좋은 투구 밸런스를 바탕으로 140km대의 직구를 던지며 커브와 체인지업 등 변화구가 뛰어난다는 평가다. 특히 제구가 좋고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춰 선발투수로의 성장 가능성을 지녔다.

2라운드에서 지명한 하준영(성남고)도 좌완 투수다. 182cm, 72kg의 하준영은 140km 초반대의 직구와 체인지업이 위력적이다. 고교 1학년때부터 경기에 나서면서 경기 운영 능력이 좋고, 큰 경기 경험이 많아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다.

3라운드에서 지명한 오정환(경기고·내야수)은 182cm, 75kg의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부드러운 수비와 빠른 발이 장점으로 꼽힌다. 발전 가능성이 큰 내야수 자원이다.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KIA의 지명을 받은 이원빈, 한준수, 김유신, 오정환, 백미카엘(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외에 5라운드 윤희영(서울고·경성대·투수), 6라운드 김승범(동산고·투수), 7라운드 백미카엘(덕수고·투수), 8라운드 문장은(배재고·내야수), 9라운드 윤준현(광주일고·성균관대·투수), 10라운드 박희주(순천효천고·동의대·투수)가 KIA 유니폼을 입는다.

윤희영은 145km대의 빠른 공을 지녔으면 볼펜 즉시 전력감으로 주목하고 있다.

김승범은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선수로, 묵직한 직구가 강점이다. 백미카엘은 140km대의 빠른 공을 뿌리는 좌완 파이어볼러 잠재력이 크다.

공수에서 탄탄한 기본기를 가진 내야수 문장은은 수비력만으로는 이번 드래프트 선수를 가운뎃 최상위권으로 꼽힌다. 사이드업 윤준현은 130km 후반대의 직구와 정교한 제구를 갖췄으면,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박희주는 184cm의 신장에서 내리 쏘는 타점이 좋아 왼손 원 포인트 릴리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2018 신인 지명을 통해 14명의 광주·전남·북 출신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이루게 됐다.

광주일고에서는 정성중(인하대·롯데)·

박주홍(한화)·김용하(삼성)·윤준현(성균관대·KIA)·김영규(NC·이상 투수), 내야수 이호연(성균관대·롯데)이 지명을 받았고, 동성고에서는 KIA의 1차 지명을 받은 포수 한준수와 함께 내야수 이태훈(홍익대·삼성), 투수 김의준(LG)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순천효천고에서는 양경민(한화)과 박희주(동의대·KIA) 두 투수가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군산상고의 내야수 고명성(kt), 투수 임지훈(한화)과 역시 투수 박성모(인하대·두산)도 이름이 호명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 배드민턴 별들 서울에 모인다

빅터 코리아오픈 슈퍼시리즈 오늘 개막

세계 정상급 배드민턴 선수들이 서울에 모인다. 총상금 60만 달러(약 6억 7000만원)가 걸린 2017 빅터 코리아오픈 슈퍼시리즈가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다.

코리아오픈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슈퍼시리즈급 대회 중 하나로, 세계 상위 랭킹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를 한국에서 직접 볼 기회다. 이번 대회에는 22개국에서 약 350명이 참가해 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5개 종목에서 최강자를 가린다.

남자단식 세계랭킹 1위 손안호(김관대·KIA)·김영규(NC·이상 투수), 내야수 이호연(성균관대·롯데)이 지명을 받았고, 동성고에서는 KIA의 1차 지명을 받은 포수 한준수와 함께 내야수 이태훈(홍익대·삼성), 투수 김의준(LG)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안호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양경민(한화)과 박희주(동의대·KIA) 두 투수가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군산상고의 내야수 고명성(kt), 투수 임지훈(한화)과 역시 투수 박성모(인하대·두산)도 이름이 호명됐다.

지난달 세계개인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남자단식 세계랭킹 2위로 뛰어오른 빅토르 악셀센(덴마크)이 세계 대상이다. 2010·2012·2013년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노련한 남자단식 스타 리충웨이(말레이시아)도 출사표를 던졌다.

여자단식의 간판 성지현(MG세마

을금)도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올해 우승으로 풀겠다는 각오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3위인 성지현은 세계랭킹 1위 타이쯔잉(대만),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와 팽팽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한국 대표팀의 최대 기대 종목은 세계대교체 바람 속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여자복식이다.

작년 이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여자복식 세계랭킹 5위 정경은(김천시청)-신승찬(삼성전기)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올해 전역오픈 우승의 쾌거를 이룬 여자복식 세계랭킹 4위 장예나(김천시청)-이소희(인천공항공사)도 또한 번의 우승을 노린다.

박주봉 감독의 지도로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일본 배드민턴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여자복식 세계랭킹 1위 마쓰토모 미사키-다카하시 아야카(일본)도 출전한다.

혼합복식에서는 세계랭킹 12위로 도약한 최승규(한국체대)-채유정(삼성전기), 대만오픈과 미국오픈에서 우승한 서승재(원광대)-김하나(삼성전기)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연합뉴스